

iM FX Brief

뜻 밖의 엔 약세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매파적 연준과 엔 약세에 미온적인 일본 정부

- 달러화 가치가 전주대비 1% 이상 상승.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회의 결과와 통화정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 케빈 워시 의장 여파 등으로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임
-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는 매파적 FOMC 회의 결과와 영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파운드화 가치 하락 여파로 약세 기조를 이어감. 참고로, 파운드화는 전주대비 1.3% 하락함
- 엔화도 예상 밖으로 큰 약세를 기록함.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 했지만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미약한 시그널로 엔화는 약세를 보임. 여기에 160엔 수준에서 어김없이 시장개입에 나섰던 일본 정부 역시 별다른 시장개입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엔 약세폭이 확대됨
- 5월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과는 상관없이 위안화의 나홀로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
- 호주달러도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약세 여파로 하락함
- 6월 FOMC 회의 여파에 따른 달러 강세와 엔 약세 영향 등으로 달러-원 환율이 한주만에 반등함. 특히, 환율 급반등으로 스무딩오퍼레이션 단행됨

	6월 19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0.8	1.10	2.57
유로-달러	1.147	-0.84	-2.34
달러-엔	161.3	0.66	2.93
역외 달러-위안	6.78	0.30	-2.75
호주달러-달러	0.70	-0.50	5.08
달러-원	1,531.0	0.84	5.98

달러-원 환율 증가는 익일 2시 기준

금주: 엔화 추가 약세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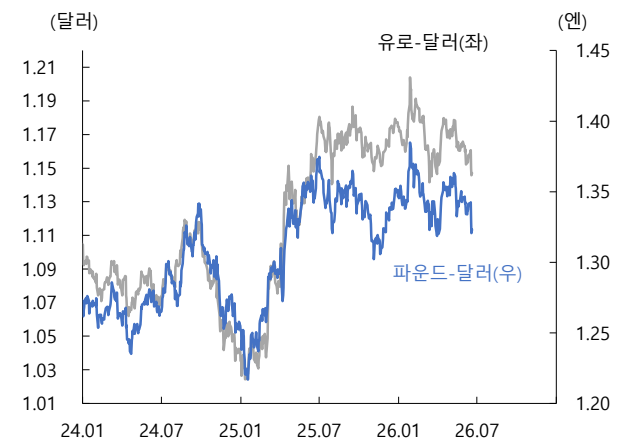
-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할 이슈는 미국과 이란간 추가 협상 누스임. 스위스에서 개최 예정인 미국-이란간 추가 협상에서 당장 큰 성과를 얻기 어렵지만 협상과 관련된 뉴스가 유가와 달러화의 변동성을 높일 것임
- 엔화의 추가 약세 여부도 주목. 일본 정부가 160엔대를 넘어선 달러-엔 환율의 추가 상승을 용인할지 여부가 달러화는 물론 원화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. 이 밖에 정부가 분기 증가 환율 관리를 위해 스무딩오퍼레이션이 나올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500~1,550원으로 예상함

그림1.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을 넘어선 달러-엔 환율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영국 정치 리스크 등으로 급락한 파운드화 가치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·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·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